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 두각 순창홀어머니산성 산책길 복적

임실군, 행복마을·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마을 24개에 28억4000만원 지원

임실군의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이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내며 본격 추진된다.

군은 행복마을만들기와 전라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의 대상마을인 총 24개에 28억4000만원을 집중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단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역점 추진하는 자체사업이다.

단계적 추진체계(행복기초→행복디딤→행복도약→행복성숙→행복자립)를 통해 마을 주민의 역량을 키우고 마을별 고유 특성을 살린 특색있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월까지(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와 합동으로 대상마을 공모 및 전문가 현장 평가 등 심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행복기초마을 2개 마을(강진 갈담, 강진 옥정)과 행복디딤마을 2개 마을(청용 발산, 운암 학암), 그리고 행복자립마을 1개마을(성수 후촌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임실군의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이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내며 본격 추진된다.

행복도약 및 행복성숙마을은 지난해까지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마을만들기 종합·자율개발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본격 시행하는 자체 사업이다.

행복도약 및 행복성숙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의 고유 자원, 자연환경, 문화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며 기초생활 인프라 보

강과 지역 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주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북도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 5개 마을, 도농교류 산촌마당캠 프사업에 7개 마을, 사후관리 1개 마을에 대해 각각 추진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회의 순창서 개최

현안사항·제도개선 사항 논의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가 19일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민선 7기 2차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과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전라북도 시장·군수 10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진상황 전달과 안건토의, 제4차 회의 개최지역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협의회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건의' 등 전라북도 현안과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7건을 상정하여 논의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극복을 위해 각종 자금의 신속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공공요금 감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전라북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의

견을 모았다.

황숙주 협의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14개 시군이 전북이라는 하나의 울타리에 같이 살아가는 한 가족임을 강조하면서 14개 시군의 단합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도 전라북도의 목소리를 전하며 지방자치법의 개정, 실질적 재정분권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 특례군 지정 등 제도 개선에도 더욱 노력할 것"임을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5명 위촉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미선 의원, 심만섭, 양성모, 이영태, 최성연 씨 등 5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15일간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의 결산검사를 실시해 시정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게 된다.

윤지홍 의장은 "꼼꼼한 결산검사를 통해 시정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평일 200명·주말 300명 방문... 군, 올해 도 기념물 지정 등 추진

순창홀어머니산성 주변(대모산) 산책길이 봄을 맞아 산책을 즐기는 읍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평일 하루에 홀어머니산성 산책길에서 운동을 즐기는 인원은 200명, 주말에는 300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



홀어머니산성 산책길에 주민들이 몰리는 이유는 읍에서 거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실제 터미널 근처에서 출발해 홀어머니산성 전체 산책 코스를 걷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아침이나 점심시간에도 가볍게 걷기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경사가 완만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산책과 등산의 중간 정도의 운동 강도를 체감하는 특징이 있다. 장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사랑받는 이유다.

특히 백제시대 축조된 홀어머니산성이 위치해 있어 걸으면서 산성의 아름다움과 지역의 역사적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지금까지 발굴에 치중하던 사업 방향을 올해부터는 안내관 설치와 산성정비 등으로 방향을 바꿔 읍민들

이 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한층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산성 내 위치한 전통사찰 대모암의 고즈넉한 아름다움도 산책코스의 인기에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순창읍에 사는 이모(45, 여)씨는 "평소 등산을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무릎이 좋지 않아 금산보다는 홀어머니산성 산책로를 자주 걷는다"면서 "흔치 않은 산성도 보면서 가볍게 걸을 수 있어 걷고 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홀어머니산성의 남문지와 집수정 발견을 위한 발굴을 진행하고 도 기념물 지정,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해 홀어머니산성 주변을 향후 순창읍과 고추장민속마을을 잇는 새로운 역사·문화 관광단지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31일까지 군청 민원과 건축계 방문 접수

도내 군단위 지자체 행복주택을 최초로 건립한 순창군이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군은 관내 신규 아파트 가격이 2억 원을 호가하면서 신혼부부들이 거주 공간 마련이 힘들어지자 지난해 순창읍 순화리 일대에 3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조성했다.

지난해 준공을 마친 행복주택은 지상 5층 규모에 전용면적 29㎡형 4세대, 44㎡형 26세대 등 총 30세대 규모다. 반경 500미터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관공서 등이 위치하여 생활여건도 편리하다.

입주신청자격은 현 거주지 관내의 상관없이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부터 예비신혼부부까지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는 차후 통보될 입주신청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3인 가구이하 월 평균소득 5,62만6,987원이하, 5인 가구 6,93만18,354원 등의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외에 재산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합산기준 2억 3,700만원 이하이면서 자동차 가격은 2,468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지난해부터 2차 걸쳐 모집한 결과 신혼부부 7세대가 입주계약을 마치고 거주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9㎡형이 보증금 900만원, 월 임대료 13만2,000원이며, 44㎡형이 보증금 1,350만원, 월 임대료 19만8,000원이다. 인근 원룸 임대료가 월 30만원에서 35만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료도 저렴한 편이다. 거주기간은 자녀유무에 따라 최소 6년에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이번 모집기간을 통해 신청한 신혼부부들은 자격요건 검증이 끝나고 계약을 마치면 오는 5월경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단,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접수 등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063-650-1436)로 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개학 연기로 납품 못한 농산물 판매 나서

남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급식 납품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 시장을 통해 출하할 경우에는 외관이 좋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싼값에 거래되지만,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는 기존 거래처가 있어 새로운 출하처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원시에 따르면 관내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시금치, 근대 등 주요 피해 품목 5종에 대해 구입을 희망하는 시청 직원 및 군부대 간부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총 3억4천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했으며, 시청 구내 식당에도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실내수영장 상반기 착공

남원시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월락동 춘향골 체육공원 내에 추진 중인 실내수영장(가칭) 건립을 위해 상반기에 착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은 월락동 248번지 일원에 길이 25m, 6대인 규모의 실내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이 결합된 복합 체육시설의 형태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억원의 국비 확보로 이뤄졌다.

그동안 남원 관내에는 수영장이 한 곳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는 민선7기 역점시책사업으로 실내수영장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원주 시장은 "앞으로도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